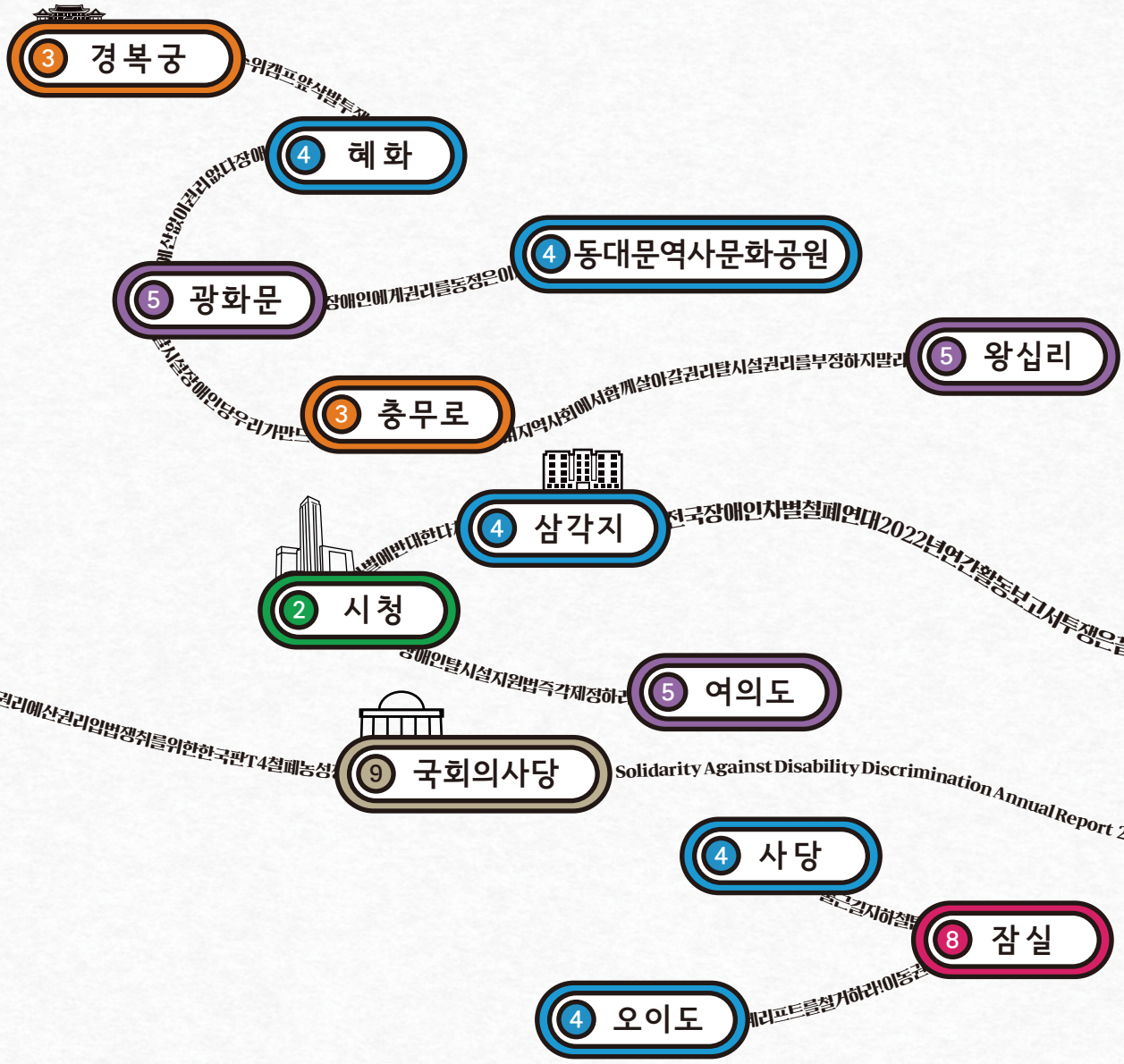
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2년 연간활동보고서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Annual Report 2022



차별엔 저항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2년 연간활동보고서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Annual Report 2022

소개 4
전장연이 걸어온 길 6
감사의 글 8
숫자로 보는 전장연 활동 10
전장연 주요단체 12
활동들여다보기 14
420공투단 14
장애인권리예산투쟁 20
지하철투쟁 21
기획투쟁사업 28
정책사업 30
연대활동 32
재정결산 34
후원해 주신 분들 36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LEAVE NO ONE BEHIND

소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지 않는 세상,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세상,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장애인 대중이 스스로 행동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2007년 출범했습니다.

1980년대 말에 태동하여 2000년대 장애인도 함께 버스를 타고 사회에서 함께 살기를 외치며 버스와 지하철을 막고 한강 다리를 기어 건넜던 장애해방 투쟁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투쟁, 장애인 이동권 및 노동권, 교육권, 탈시설 및 자립생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장애관련입법 및 제개정 운동 투쟁과 행동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평등한 사회,
사람 중심의 가치를 실현해 나갑니다!

✊낮은 곳에서 치열하게 싸워왔던
저항의 역사를 기억하고 실천합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한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과 연대합니다!

차별과 배제 없는 장애해방의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강령 전문

한국 사회와 장애인의 삶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삶의 역사는 철저한 억압과 차별의 역사였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 사회가 부과하는 경쟁과 효율성의 원칙은 장애인의 속도와 고유성을 무시한 채 우리의 행위를 무가치한 것으로, 기준 이하의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장애의 문제를 장애인 개인이 지닌 육체적 • 정신적 손상의 문제로, 개인적 비극의 문제로 끊임없이 재생산해내려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 극복이라는 신화가 만들어지고, 시혜와 동정의 이데올로기가 만연해 왔다. 또한 가부장제와 성적 차이를 매개로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지적 차이를 매개로 정신적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의 문제는 더욱 노골적이고 심각한 상황에 있다. 한국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던 군부독재가 마감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는 하지만, 사회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은 정권의 정당성을 치장하기 위한 부속물로 전락하고, 장애민중은 지배 권력의 논리와 안전이 침범 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가 남는 만큼만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삶을 살아야 했고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계의 현실

이러한 야만적 현실 속에서 장애인계 전반의 대응은 그 참혹한 현실과 차별의 무게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거대 법인 단체들로 구성된 소위 장애인계의 주류세력은 국가의 지원금에 의존하면서 정부의 시의 적절한 협력 파트너가 되어 장애민중의 현실을 외면한 채 권력의 대리인 역할에 충실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단체의 운동은 운동 산업이 되었고, 운동 권력은 제도 권력의 대리인이 되었으며, 운동문화는 저항문화가 아닌 이를 차단하는 안전판의 구실을 해왔다. 이들의 활동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대리인 역할 선점을 위한 헤게모니 다툼으로 변질되고, 장애민중의 대중투쟁을 적절히 이용하며 더욱 보수 • 관변화 되어가는 악순환이 거듭되어 왔던 것이 지금 장애인계의 현실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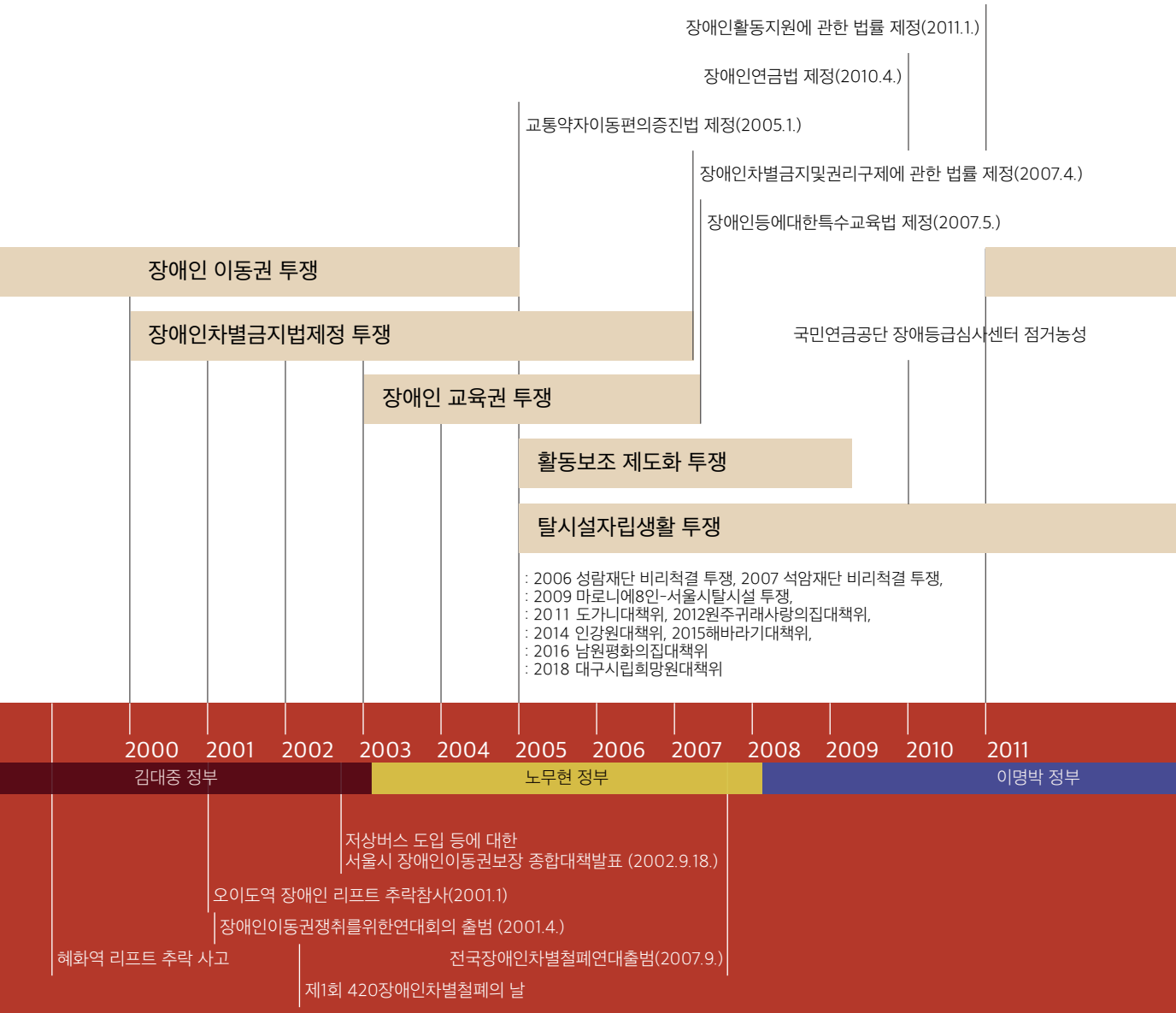
장애인차별철폐와 장애해방의 새 세상을 향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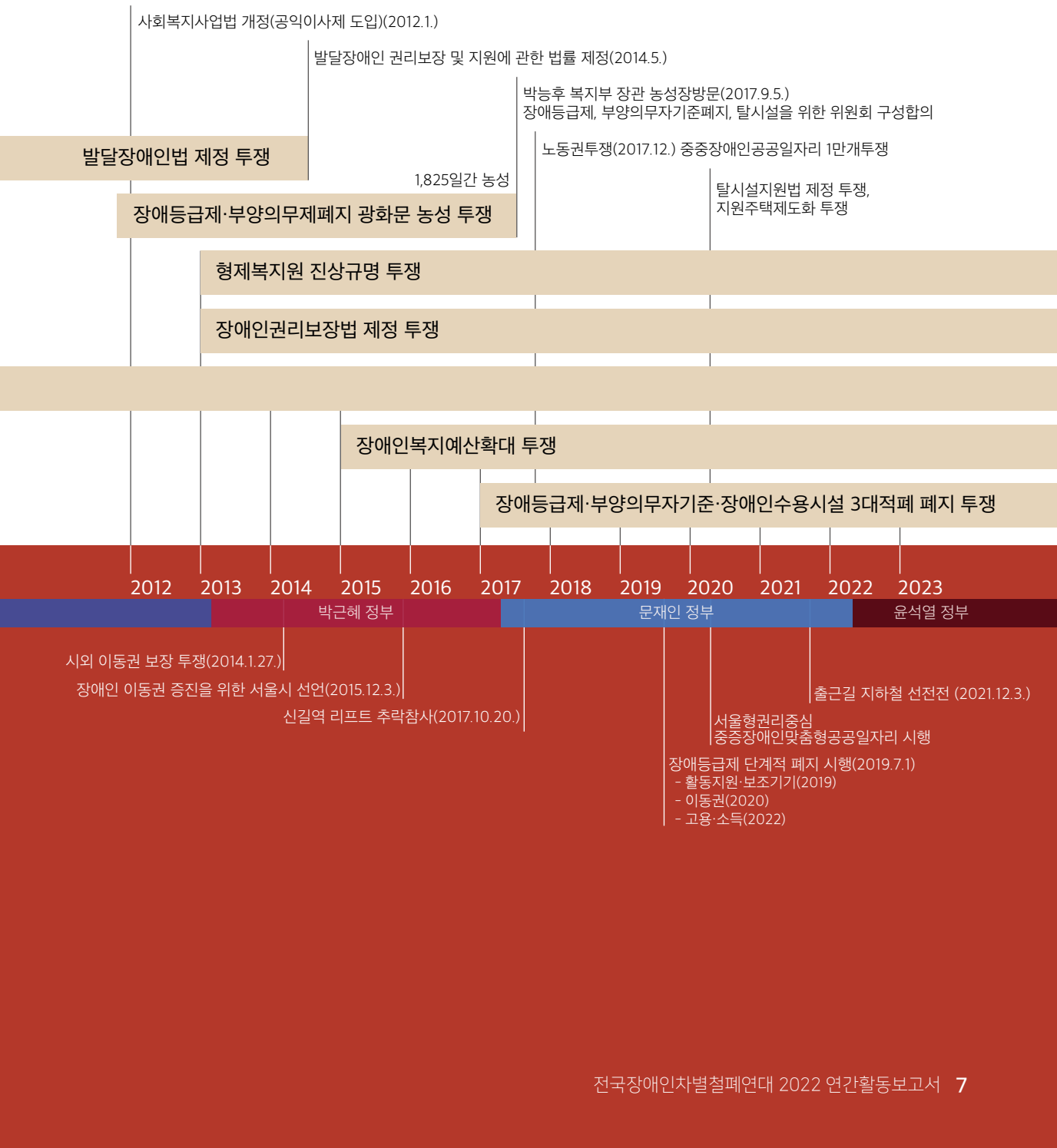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울림터,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한 선도적인 투쟁과 이러한 투쟁을 더욱 대중적인 틀 속에서 풀어가고 했던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의 활동은 장애민중의 역사가 단지 굴종과 억압만이 아닌 저항과 투쟁의 역사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새 천년 신자유주의의 광풍을 거슬러 폭발하기 시작한 장애민중의 이동권 투쟁은 교육권, 노동권, 생존권, 자립생활 쟁취 투쟁 등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중증장애인과 장애여성, 부모 주체들의 활동은 장애인운동의 새로운 시야와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각 영역별 운동과 주체들의 활동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 속에서 지속적인 연대의 경험을 축적해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러한 장애민중운동의 역사를 계승하며,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이라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해가는 속에서 장애인의 차별철폐와 인간다운 삶의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자 한다.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는 자만이 가장 혁명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사회에서 가장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계층인 장애민중의 힘과 투쟁으로 장애해방, 인간해방의 새 세상을 건설하자!

거리의 턱을
없애는 것부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라도
바꾸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기에
차별에 저항합니다
사회가 변화합니다

전장연이 걸어온 길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1.1.)
장애인연금법 제정(2010.4.)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2005.1.)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2007.4.)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정(2007.5.)
장애인 이동권 투쟁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투쟁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 점거농성
장애인 교육권 투쟁
활동보조 제도화 투쟁
탈시설자립생활 투쟁
: 2006 성람재단 비리척결 투쟁, 2007 석암재단 비리척결 투쟁,
: 2009 마로니에8인-서울시탈시설 투쟁,
: 2011 도가니대책위, 2012원주귀래사랑의집대책위,
: 2014 인강원대책위, 2015해바라기대책위,
: 2016 남원평화의집대책위
: 2018 대구시립희망원대책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저상버스 도입 등에 대한
서울시 장애인이동권보장 종합대책발표 (2002.9.18.)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참사(2001.1)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출범 (2001.4.)
혜화역 리프트 추락 사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출범(2007.9.)
제1회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공익이사제 도입)(2012.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4.5.)
박능후 복지부 장관 농성장방문(2017.9.5.)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기준폐지, 탈시설을 위한 위원회 구성합의
노동권투쟁(2017.12.)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 1만개투쟁
1,825일간 농성
탈시설지원법 제정 투쟁,
지원주택제도화 투쟁
발달장애인법 제정 투쟁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 농성 투쟁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투쟁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투쟁
장애인복지예산확대 투쟁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장애인수용시설 3대적폐 폐지 투쟁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시외 이동권 보장 투쟁(2014.1.27.)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2015.12.3.)
신길역 리프트 추락참사(2017.10.20.)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2021.12.3.)
서울형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시행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2019.7.1)
- 활동지원·보조기기(2019)
- 이동권(2020)
- 고용·소득(2022)

감사의 글



지난 겨울은 매서웠는데, 벌써 봄이 와서 유채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매서운 추위와 눈보라가 오지 않았기를 기원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3년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정치권과의 협상과 저항으로 이루어진 노력들을 통해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성과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지지해주신 분들의 힘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참여를 더욱 보장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투쟁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애인의 권리와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투쟁은 계속됩니다. 특별교통수단 국비지원 근거와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등의 제도적인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 큰 지지와 연대가 필요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지역에 계신 단체, 연대단체들은 이를 위한 활동과 역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합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인도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비장애중심주의사회 능력주의를 철폐하고, 장애인권리예산 투쟁전선을 강화하여 장애인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는 것은 물론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지하철 선전전"과 "삭발투쟁", 47차례에 걸친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 등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고, 시민과

언론, 정치계에서 장애인의 권리예산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선거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보수정권이 들어서며 투쟁의 강도만큼 협상력으로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된 투쟁을 통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정치, 언론, 사회 전반에 장애인의 권리예산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이동권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동지들은 중증 장애인의 삶이 사회와 정치권력의 무책임 속에서 잊혀지는 삶이 아닌 시민의 권리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장애인권리예산이 만들어질 때까지 연대와 지지와 함성을 한 목소리로 모아 질긴 투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투쟁하여, 장애인 차별 철폐와 평등한 사회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지역장차연 활동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앞날에도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숫자로 보는 전장연 활동

함께 한 사람들

단체회원

6개 전국조직

전국 15개 지역 장차연 (재정비 지역 2곳)

160개 단체 결합

2022년 420 공투단

단체 164, 개인 1,122명

개인회원

후원회원 1,448명(2021. 1,064명)

장비회원 995명(2021. 623명)

페이스북 팔로워

10,290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2,549명

유튜브 구독

2,916명

트위터 팔로워

15,979명

뉴스레터 구독

211명

연간 투쟁일수

1,068회



지하철 선전전

장애인권리예산 • 입법 쟁취 지하철 선전전 253일차 진행
(1~20일차 2021년 진행)

출근길지하철탑니다



47차 (2021.12.3 시작, 1~4차 2021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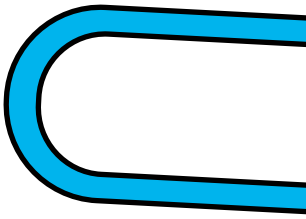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삭발투쟁

141일차 177명 삭발 (3.30~12.1)

농성투쟁

장애인권리예산 •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한국판T4 철폐 농성 657일째 진행

장애인권리예산 삼각지역(대통령실역) 농성투쟁 33일간 진행



전장연 주요단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2003년 장애인 교육권 연대의 활동에 이어 이후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출범하였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장애아양육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간활동서비스 등 새로운 복지 제도를 만들어 냈습니다. 교육권 운동뿐만 아니라 복지, 노동, 주거, 소득보장, 여가문화, 체육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차별 없는 삶을 위해 정책 개발과 법률 제·개정 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도 여전합니다. 부모연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003년 출범하여 현재 90여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연대하여 장애인 차별과 억압의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권익옹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전국 협의체입니다. 사회영역의 장벽과 차별을 없애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들의 완전한 지역사회 참여를 위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뇌협)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통해 뇌병변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1993년 [뇌성마비연구회 바롬]으로 시작하여 2000년 [전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2003년 [한국뇌성마비부모회]와 통합을 거쳐 뇌병변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2005년에 한뇌협을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뇌병변장애인의 이동권, 생존권, 의사소통권리, 권익옹호 운동을 필두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권리와 그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인권을 위해 행동하고 권리를 실현]하는 단체입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2004년 출범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연합체' 입니다. 중증장애인 성인들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구축하여 권리중심의 노동으로 연결하는 평생교육을 실천하며,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동안 만성적인 교육 소외와 배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인간 존엄과 평등이 넘치는 세상을 향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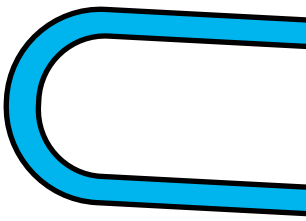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전권협)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아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전국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노동에서 가장 배제된 집단으로 취급되어온 최중증장애인들을 노동자로,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그려냅니다. 3대 직무(권리옹호, 문화예술, 장애인인식개선)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권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국 조직입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이동권연대)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명시한 '자유권적인 기본권'임을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지하철, 시내·광역버스, 고속버스 등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대중교통에서의 권리보장 뿐 아니라 주택,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등 건축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용도의 건축물과 이를 연결하는 도로에서의 접근권 확보를 목적으로 활동합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비장애중심주의적 사회에서 격리되고 배제되었던 장애인들에게 박탈된 가장 권리였습니다. 일하고, 배우고, 쉬고 즐기기 위해서는 집 밖으로 나와 원하는 공간으로 옮겨갈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그 누구도, 지역 그 어디에서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Leave No One Behind)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20주년

2002년 4월 20일, 시혜와 동정뿐인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사회 구석구석 자리 잡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동등한 시민임을 드러내며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외치는 실천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2년은 420공투단 20주년이 되는 해로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420슬로건과 지하철투쟁을 알리는 특별캐릭터와 함께 여의도에서, 대통령인수위원회 앞에서, 경복궁역에서, 충무로역에서 강렬한 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일정

- 420공투단 1차 전체회의 : 2월 11일(금)
- 420공투단 출범식 및 18회 전국장애인대회
  2022년 3월 24일(목) ~ 25일(금),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국회 농성장-지하철이동-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 - 충무로역
- 420공투단 2차 전체회의 : 3월 10일(목)
- 420공투단 3차 전체회의 : 4월 7일(목)
-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 1박2일 전국집중투쟁
  : 4월 20일(수) ~ 21일(금)
  국회 앞 농성장, 여의도 일대, 시청역/경복궁역
- 420공투단 해단식 및 제1회 장애인노동절
  : 5월 1일(일), 마로니에공원
- 420공투단 4차 전체회의 : 2022년 5월 12일(목)

공투단 참여 단체

중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남양주지회, 경기지부 부천지회, 경남지부 창원지회, 경남지부 의령군지회, 경북지부 김천지회, 광주지부, 대전지부, 서울지부, 서울 성북지회, 서울 서초지회, 서울 강남지회, 서울 양천지회, 서울 동대문지회, 서울 노원지회, 서울 종로지회, 서울 성동지회, 울산지부, 인천지부, 전남지부 여수지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강릉센터, 원주센터, 김포센터, 포천나눔의집센터, 수지센터, 이삭센터, 디딤돌센터, 화성동부센터, 에바다센터, 상록수센터, 수원센터, 일산서구햇빛촌센터, 아람센터, 밀양센터, 경남센터, 안동센터, 오방센터, 광주나눔센터, 광주어울림센터, 다사센터, 노들센터, 노원중증센터, 새벽지기센터, 중랑센터, 성북센터, 강동센터, 한울림센터, 용산행복센터, 광진센터, 가온센터, 은평센터, 강남센터, 성동센터, 이음센터, 어울림센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세종보람센터 , 민들레센터, 무안센터, 광양센터, 신안센터, 여수센터, 유달센터, 옥천센터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김포장애인야학, 이천희망품은장애인야학, 안산나무를심는야학, 질라라비장애인야학, 대전장애인배움터풀꽃야학, 장애인참배움터,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민들레장애인야학, 목포여성장애인평생교육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기지부, 경산지회, 구미지회, 울산지회 **기타 전장연 소속 단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발달장애청년허브 사부작 사회적협동조합,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연대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금융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궤도협의회, 평등사회교육원, 전북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활동지원사지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민주노총법률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특수분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기술본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건설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홈리스행동, 영희네부동산, 희망연대노조 서울교통공사고객센터지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빈민해방실천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문화광고마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공공교통네트워크, 즐거운청년커뮤니티ⓒ끌림, 스튜디오 알, 건강세상네트워크, 트랜스해방전선, 천주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한국진보연대, 사회적협동조합함께이룸, 함께서울,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지원협회,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서리풀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영등포장애인복지관, 파주해바라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휴먼케어교육센터,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단법인한국장애포럼, 부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스파인2000, 희망을만드는법, 녹색당, 노동당 장애위원회,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노동당



420장애인권위원

가을 갈홍식 강경남 강경남 강동진 강동철 강미선 강민주 강민지 강병호 강상철 강성원 강성회 강수문 강윤희 강한별 강희석 고건우 고경자 고경호 고관홍 고병권 고미경안진 고운 고원일 고유미 고유정 고윤숙 고진수 고찬영 고태은 고형석 고효준 공경자 공군자 공대식 공영옥 공유정옥 공유정옥 공진하 공태윤 곽보연 곽상길 곽승용 곽유미 곽은경 곽이경 곽인숙 광훈 구미연 구민서 구자혁 국미진 국혜윤 권기한 권다은 권달주 권두섭 권미경 권민희 권성은 권소현 권수진 권영대 권영은 권재현 권태영 글로리아지 김건수 김건우 김경우 김경익 김경훈 김경희 김관중 김광이 김근영 김근희 김기룡 김기정 김나혜 김남선 김남선 김남효 김다연 김다원 김대성 김대엽 김덕현 김동구 김동규 김동림 김동중 김동하 김동현 김두식 김라현 김명래 김명숙 김명연 김명하 김명희 김미경 김미선 김미선 김미선 김미숙 김미숙 김미연 김미영 김미정 김미정 김미정 김미정 김미주 김미진 김미현 김미형 김민영 김민호 김범수 김별샘 김병곤 김병욱 김상희 김서현 김석 김선경 김선민 김선숙 김선영 김선옥 김선욱 김선재 김선철 김선호 김선화 김선희 김선희 김성득 김성란 김성수 김성심 김성애 김성진 김성현 김성훈 김성훈 김세정 김세정 김세희 김소담 김솔아 김송기 김수용 김수정 김수진 김수진 김수현 김순영 김순예 김순지 김순지 김순화 김순희 김숭식 김시온 김시은 김아령 김양희 김여진 김연재 김연주 김영관 김영규 김영락 김영숙 김영숙 김영아 김영우 김영임 김영진 김영태 김예영 김예진 김옥빈 김용식 김우 김우진 김운주 김웅전 김유리 김유리 김유미 김유숙 김유진 김유현 김윤아 김윤영 김윤이 김윤정 김윤회 김은주 김은진 김은진 김은진 김은형 김은혜 김은호 김은희 김이단 김일권 김일영 김재민 김재민 김재선 김재영 김재영 김재우 김정남 김정민 김정은 김정태 김정환 김종태 김종현 김종환 김주현 김준영 김중미 김지민 김지애 김지연 김지유 김지윤 김지은 김지이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지훈 김지희 김진 김진박 김진성 김진수 김진훈 김창현 김철홍 김태남 김태영 김태훈 김평화 김필순 김하림 김하성 김학권 김한미 김한수 김현 김현경 김현빈 김현숙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현희 김형규 김형기 김형기 김형호 김형호 김혜인 김혜정 김혜진 김효영 김효진 김훈녕 김희순 김희옥 김희찬 깜깜 나승구 나유진 나혜선 남궁우연 남궁정 남대일 남믿음 남정아 남정우 남태식 남태제 노상은 노승돈 노재현 노진영 노태운 노현웅 노희정 다니주누 단비 뎡야핑 도성자 뚤린 라옥란 루카 류다영 류서연 류승민 류호상 마야 메밀 명근철 명숙 명신 모경훈 목서희 문경란 문경원 문경은 문경희 문명순 문민기 문상민 문애린 문애준 문영준 문윤정 문일평 문장문 문종국 문필수 문희원 민들레 민병일 민선화 민승찬 민승호 민아영 민유진 민푸름 민하영 민현기 박경득 박경석 박경숙 박경순 박경실 박경옥 박경화 박길연 박김민건 박김영희 박난희 박노봉 박누리 박다인 박도현 박래군 박문규 박미숙 박미순 박미정 박미주 박미하 박민 박민주 박민지 박민지 박봉서 박상미 박상수 박상호 박석용 박선우 박선하 박설 박성아 박성원 박성진 박성필 박소영 박소윤 박수은 박숙경 박순우 박승렬 박신 박아름 박연정 박영민 박영옥 박영윤 박영직 박온슬 박완기 박완기 박용석 박용원 박윤정 박은경 박은정 박은종 박인호 박임당 박재영 박재현 박정민 박정숙 박정옥 박정환 박종옥 박주석 박주아 박주연 박주영 박준호 박지나 박지영 박지웅 박지호 박지후 박지후 박진 박진교 박찬건 박창숙 박철균 박치현 박하순 박현 박현미 박현서 박현숙 박현영 박현우 박혜경 박혜진 박호관 박화숙 박흥규 박희은 반태경 방경배 방수진 배기남 배상원 배승천 배승현 배영준 배용호 배종철 배태선 백건하 백남희 백성곤 백소요 백수미 백순옥

백영미 백지현 백현정 백현정 변규리 변동현 변상출 변은희 변창연 변후정 보리
사루 상현 서권일 서덕규 서린 서보람 서성윤 서수석 서승엽 서연화 서은주 서정일
서종수 서주연 서지원 서창숙 서한영교 서희정 석다솜 선은진 선주호 성가연 성경삼
성다은 성지훈 성희영 소리 소주 소현우 손경숙 손두현 손용규 손정아 손종명
손지은 손진우 손혜진 송대연 송서하 송승훈 송영만 송은영 송정규 송정윤 송현
송현미 순수동이네 신경수 신경현 신나리 신동성 신동연 신봉준 신선미 신승태
신승혁 신연실 신은애 신은주 신인기 신정숙 신진선 신춘희 신필용 심요한 심정순
안경선 안나 안나 안병억 안석범 안소진 안수빈 안연주 안유미 안은경 안재성
안준호 안지완 안현희 안형준 안혜영 안효성 양경수 양다솜 양동규 양동민 양서영
양서현 양선화 양승권 양승만 양승유 양원후 양재규 양제희 양준호 양차애 양철우
양현준 양혜정 양혜정 양혜진 엄미경 엄보람 엄영애 엄정미 여동기 여름 여인서
여지수 연윤실 염은정 염정열 예성태 오대희 오민섭 오민혜 오성현 오세숙 오영선
오영주 오윤심 오은숙 오은숙 오춘상 오한정 오해숙 옥영선 우나리 우미영 우정규
우지연 원동일 원성필 원성필 원효 원효식 유금문 유남길 유병제 유승희 유양길
유연준 유이분 유재근 유재선 유종욱 유종이 유지원 유진아 유진우 유찬종 유찬종
유청희 유혜영 유희정 윤명출 윤미연 윤병석 윤상훈 윤서진 윤성근 윤세진 윤정기
윤정오 윤정훈 윤종운 윤지예 윤창현 윤춘노 윤태석 윤태호 윤호숙 이갑수 이강일
이경영 이경은 이경호 이경훈 이경희 이계정 이광용 이구원 이근욱 이금희 이나라
이나래 이남진 이도훈 이동진 이동환 이동환 이리나 이만호 이명기 이명은 이명준
이무성 이문구 이미경 이미예 이미정 이민숙 이민재 이민호 이민호 이민호 이범민
이별님 이병선 이보람 이봉연 이상국 이상배 이상수 이서후 이석 이선이 이선이
이선희 이선희 이선희 이선희 이성권 이성민 이성민 이성원 이성희 이소망 이소영
이소영 이소영 이송지 이수미 이숙영 이숙영 이순옥 이승민 이승아 이승연 이승우
이승한 이시현 이심지 이아란 이아름 이양우 이연수 이영주 이오나 이옥순 이옥제
이용기 이용숙 이용욱 이우연 이운태 이원교 이원이 이원호 이유정 이윤아 이윤임
이윤희 이은미 이은비 이은용 이은우 이은정 이의진 이의환 이인화 이일 이재명
이재수 이재언 이재욱 이재은 이재임 이재혁 이재호 이정민 이정헌 이정희
이종걸 이종란 이종우 이종풍 이주언 이주영 이주원 이주현 이지민 이지숙
이지연 이지연 이지윤 이지현 이지호 이지희 이진경 이진성 이진숙 이진이
이창근 이창민 이창옥 이창현 이채윤 이채희 이철주 이태규 이하나 이하니
이학인 이한영 이한진 이향숙 이현경 이현담 이현아 이현정 이혜림 이혜원
이혜지 이화수 이희재 임경아 임동재 임미경 임미연 임상옥 임선희 임성복
임소영 임수경 임순광 임유정 임윤희 임정택 임지영 임천길 임철호 임하완 임현숙
장갑순 장누리 장다혜 장도연 장명구 장미라 장민경 장범식 장병순 장성환 장세일
장소라 장순기 장용진 장인선 장재영 장정민 장정임 장정화 장지철 장지훈 장창원
장현술 장희원 전대식 전비담 전상임 전연주 전영남 전용숙 전유경 전인숙 전정남
전정민 전정희 전종덕 전종옥 전지윤 전하윤 전해자 전혜정 정경윤 정경은 정경진
정기열 정기영 정기호 정다솔 정다운 정리연 정만훈 정미남 정미선 정민구 정민철
정민형 정병민 정보라 정성철 정소희 정수현 정순경 정영일 정오늘 정우영 정원희
정유숙 정유진 정윤영 정윤영 정윤영 정은유 정은주 정은희 정의로 정이량 정이량
정재미 정재욱 정재욱 정주희 정지연 정지원 정지은 정진수 정진영 정태석 정태순
정현순 정현철 정형택 정호림 정희경 정희서 정희완 조건희 조경미 조댄성 조만성 이어서 계속→

활동 들여다보기

420인권위원 앞에서 이어짐

조미경 조미란 조미연 조민제 조민지 조민철 조상필 조성남 조성봉 조성은 조성준 조성진 조성태 조세화 조수안 조아라 조연민 조연주 조영선 조용배 조은미 조은별 조은비 조은상 조은소리 조은애 조은혜 조이현주 조재훈 조정미 조정훈 조주림 조진영 조진희 조항경 조혁진 조현기 조현숙 조현주 조형수 조혜민 조혜정 조혜진 조희은 죠스 주수원 주승화 주요한 주은아 지렁 지병수 지선명 지혜복 진성선 진영인 진은선 짱돌 차한선 채지민 채현진 천경예 천선자 천성호 천종열 천진영 최경숙 최경아 최경아 최경열 최고운 최관호 최국진 최기석 최다빈 최대식 최대환 최동규 최만식 최명숙 최명진 최미순 최미정 최민 최민지 최상균 최상덕 최석종 최성은 최성혁 최세환 최수인 최수정 최영리 최영주 최예지 최예찬 최원 최유진 최은경 최은주 최익수 최인숙 최인혁 최장원 최재숙 최정식 최주영 최준일 최지원 최지혜 최진석 최창규 최하얀 최한별 최해술 최혁규 최현아 최현희 최혜선 최희숙 추현욱 콜리 탁미영 탁선호 편경희 하경심 하선우 하영명 하혜원 한경화 한만승 한명숙 한명희 한민정 한상진 한상현 한선아 한성희 한영신 한예인 한유리 한윤조 한정빈 한정수 한정윤 한정화 한지혜 한철희 한춘희 한혜선 한희 함계남 함기선 허광훈 허기봉 허미라 허병권 허성희 허성희 허신행 허진선 허진화 현승은 현승은 현정아 현필경 호영진 호정 홍경아 홍관희 홍관희 홍애영 홍영희 홍윤경 홍정은 홍지은 홍찬호 황규수 황보경 황삼녀 황선주 황수연 황수진 황은성 황준수 황현진 황혜정 황희정 희음

@정의당 국회의원_장혜영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활동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누군가는 '장애인도 살기 편한 세상'이 됐다고 말합니다. 출근길을 막고, 업무를 방해하는 장애인들이 오히려 '강자'가 아니냐고 되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 세상이 왔다면,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활동 20주년을 '축하'하는 날이 오지 않았겠지요. 진정으로 이 사회의 불합리한 체제와 부조리한 차별이 다 사라진다 해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문턱들을 없애기 위해 30년, 40년 계속해서 투쟁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국회 동지'로서, 앞으로도 함께 더 뜨겁게 싸우겠습니다.

20주년 특별 페이지

2002년에 시작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20주년의 역사를 한곳으로 모아 특별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사진부터 공투단의 요구사항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20주년 역사툰'과 축하메세지도 담겨있습니다. 신기할 만큼 2002년 '장애인의 노동권, 이동권, 교육권, 시설비리척결, 장애여성, 복지(빈곤, 실업장애인의 최저생계 보장), 참정권의 7개 영역에 대한 요구'가 2022년 지하철 속 외침과 닮았습니다. 지치지 않겠습니다. 다시 420공투단 21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정태수. 최옥란 열사 20주기 추모제

장애인 조직화 활동에 앞장서 장애인운동의 토대를 만든 정태수 열사, 장애여성·노점상·빈민으로서 초창기 장애인운동 및 기초법 개정 투쟁을 한 최옥란 열사가 떠난지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젊은 두 열사를 떠난 보낸 해, 420공투단을 시작하였습니다. 열사를 기억하기 위한 추모제, 추모토론회, 추모연극 등 다양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또 비마이너가 기획한 <**유언을 만난 세계 : 장애인행사열사, 죽어서도 여기에 머문자**>는 제27회 만해문학상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먼저 간 장애해방열사와 현재의 장애해방열사가 뜨겁게 함께 한 2022년이었습니다.

정태수 열사 20주기 추모제
: 3월 1일, 마석모란공원

326장애해방열사합동추모제
: 3월 24일, 충무로역

최옥란 열사 20주기 묘소참배
: 3월 26일, 벽제추모공원

정태수.최옥란 20주기 기념토론회
: 3월 23일, 대학로

추모극 <란>, <태수야>
: 4월 8일~10일, 성북마을극장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2003년 서울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에서 11편의 장애인인권영화를 상영하며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매년 영화제를 열어 장애인 인권이 담긴 작품을 상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증폭되는 데 주목하고 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 속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을 하고, 영화 제작에 협력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420공투단 기간에 열리는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420을 대표하는 문화활동으로 자리잡았습니다. 2022년 21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함께 살기 위한 맞울림, 다음 질문을 해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4월 29일 ~ 5월 1일까지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활동 들여다보기

장애인권리예산투쟁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한국판 T4철폐 농성장>

2021년 3월 16일, 양대법안(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해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광화문역 지하차도 1842일 농성의 경험으로 농성장을 시작하는 것에 이력이 났지만 이번 농성장은 천막이 아닌 무려 컨테이너 농성장을 만들었습니다. 2022년 9월 28일, 농성장 이름을 '**한국판 T4철폐 농성장**'으로 바꾸고 15개 장애인권리법안 제·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앞 컨테이너 농성장은 장애인운동의 주요거점으로서 장애인권리입법·예산을 만들어가고, 윤석열 정부 5년의 투쟁을 뚫고 나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여의도에서 투쟁하는 동지들 왕래하며 연대하며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일정

- 2021년 3월 16일 농성 시작
- 2021년 7월 29일 ~ 8월 2일 탈시설로드맵 탈시설권리 명시 촉구 컨테이너 옥상투쟁
- 2021년 9월 13일 탈시설장애인당 투쟁캠프 개소식
- 2022년 2월 16일 탈시설장애인당 대통령후보
- 2022년 4월 20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최종경선후보 발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 2022년 3월 28일 ~ 4월 14일 420공투단 20주년 여의도농성장 봄맞이 일상 프로그램
- 2022년 8월 2일부터 ~ 현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화요집회> 매주 진행
- 2022년 9월 28일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 정치가 책임져라!" 전국집중결의대회
- 2022년 12월 1일 세계장애인의날 전국집중결의대회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 쟁취 <지하철 투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01년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1년 동안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005년 '교통약자법'이 제정되었지만, 제정이후 17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법에 명시된 '장애인 이동권'을 권리로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동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만남의 시작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만남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시작점 입니다. 관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이동하고,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도 교육받고 일할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소외되고 격리된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만남과 교육, 그리고 자립하여 스스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2021년 12월 3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을 위한 출근길 지하철 투쟁을 시작하며 2022년 전장연은 뜨거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2021년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1박2일 농성 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둘째 날인 '세계 장애인의 날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연내 개정 및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촉구 선전전'으로 우리는 여의도역에서 출발하여 공덕역으로 향하는 출근길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날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장연의 지하철 타기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시에 **"엘리베이터 설치 100% 약속을 이행하라"** 외치며 지하철을 탔었고, **"명절에 장애인도 고향 가고 싶다"** 고 외치며 지하철을 탔었습니다. 그러나 출근길 장애인의 지하철 타기는 달랐습니다. 비장애인이 중심인 사회에서 그것도 가장 붐비는 출근 시간대에 장애인의 등장은 온 세상을 멈추었습니다. 노동력을 실어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인 지하철이 멈추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비장애인 중심 사회를 멈추게 되자 관심과 함께 엄청난 혐오와 욕설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하철에서 이동권이 아닌 교육권, 노동권, 거기에 탈시설 권리를 외치냐?"*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처음에는 이동권만 외치다가 왜 장애인 권리를 외치냐?"*고 하십니다. 처음부터 이동권이 아닌 2022년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외쳤었지만, 사람들 눈에는 이동권만 보였나 봅니다. 이동조차도 자유롭지 못한 중증장애인의 삶만 보였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에 대한 우리의 외침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면담 촉구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그리고 삼각지역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연착시켰고, 지하철 안을 기는 오체투지를 하고, 지하철 역사 안에서 삭발투쟁을 했습니다. 마지막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가 되길 바라며 탄 2022년 12월 2일 '제4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가 정말 마지막이 될지 저희는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2023년부터 1월부터 출근길 지하철은 장애인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상은 장애인에게 그리고 억압받는 이들에게 '**사회적 강자라 부르며 무정차 통과**'라는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활동 들여다보기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 쟁취 <지하철 투쟁>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2021년 12월 6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과 장애인권리예산 권리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혜화역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거리의 턱을 없애달라는 84년 김순석 열사의 죽음과 2001년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참사 이후 만들어진 '장애인 이동권'을 권리로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첫 선전전 당일도 역시 서울교통공사는 '혜화역 엘리베이터 봉쇄'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억압하는 반인권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며 저상버스도입 의무화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특별교통수단 관련 예산지원은 원안의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불씨를 던졌습니다.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SNS를 통해 '서울시민을 불모'로 잡고 있다며 혐오의 불씨를 덧붙였습니다. 반대로 강민정, 김예지, 심상정, 장혜영 국회의원은 지하철 선전전에 연대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 관련 법률에 명시된 권리 조차 보장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하며 시민분들에게 호소하는 자리로 선전전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삭발투쟁>

대통령선거가 한창이던 2022년 3월 당시 심상정,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의 이동권 보장 약속에 따라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잠정 중단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며 경복궁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어렵게 성사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면담은 노력하겠다는 말 외는 더 이상의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2022년 3월 30일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를 위한 '**삭발투쟁 결의식**'을 시작하고 5월 3일부터는 삭발한 동지들과 출근길 지하철 오체투지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 예산안이 통과된 12월 3일까지 141일간 177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삭발을 했습니다. 학교와 직장에서 그리고 시설과 집에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의 삶을 이야기 하고, 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가는 비장애인 활동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국의 동지들이 새벽 첫차를 타고 삭발을 하러 오고, 너무 먼 동지들은 전날 농성장과 삼각지역 인근 숙소에서 삭발결의문을 썼습니다. 활동가들은 매일 동지들의 머리를 밀고 삭발결의문을 외치면서 이어지는 투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세웠습니다. 당신과 나의 투쟁이 이어져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01년 서울역 지하철 선로에 내려가 중증장애인이 세상의 전면에 섰다면, 2022년 지하철이 멈추자 세상이 드디어 중증장애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지가 아닌 혐오이고 욕설이더라도 무관심이 아닌 관심으로 바뀌는 해가 되었습니다.









활동 들여다보기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 쟁취 <지하철 투쟁>



177명의 삭발투쟁 결의자

이형숙 (1일차, 서울시협의회), **최용기** (2일차, 한자협), **권달주** (3일차, 전장연), **배재현** (4일차, 서울장차연), **이수미** (5일차, 노들센터), **최동운** (5일차, 노들센터), **이창준** (6일차, 전남장차연), **요지** (6일차, 홈리스야학), **문경희** (7일차, 세종장차연), **차한선** (7일차, 피노키오센터), **박현** (8일차, 한자협), **노금호** (9일차, 대구장차연), **강현석** (10일차, 전북장차연), **유진우** (10일차, 노들센터), **이영봉** (11일차, 경기장차연), **이경호** (11일차, 경기장차연), **정기열** (11일차, 경기장차연), **이우연** (12일차, 양주디딤돌센터), **김태현** (12일차, 한뇌협 경기지부), **배영준** (13일차, 광주장차연), **유승권** (13일차, 전북장차연), **양선영** (14일차, 한울림센터), **발달장애인부모 500여명** (15일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명학** (16일차, 노들장애인야학교장), **천성호** (16일차, 노들장애인야학교장), **김탄진** (16일차, 노들장애인야학), **김진석** (16일차, 이음센터), **이종광** (16일차, 한뇌협 경산지회), **이규식** (16일차, 서울장차연), **모경훈** (17일차, 우리하나은평센터), **임경미** (17일차, 옥천센터), **노지성** (17일차, 사람센터), **유재근** (17일차, 민들레센터), **김예진** (17일차, 민들레장애인야학), **김성엽** (18일차, 가치이룸센터), **오성환** (19일차, 노원중증센터), **임형찬** (19일차, 노원중증센터), **문애린** (20일차, 이음센터), **최진영** (21일차, 성동센터), **박종희** (21일차, 성동센터), **이상진** (21일차, 용산행복센터), **서명석** (22일차, 중랑센터), **최호성** (22일차, 장애인건강권연구소), **오영철** (23일차, 새벽지기센터), **주정수** (24일차, 동서울센터), **허종** (25일차,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정명호** (25일차, 아람센터), **이해달** (26일차, 함께배움장애인야학), **김유현** (26일차, 두리센터), **김지훈** (27일차, 의정부센터), **장상석** (27일차, 의정부센터), **박길연** (28일차, 민들레장애인야학), **문상민** (28일차, 민들레장애인야학), **최강민** (29일차, 한국센터협의회), **최민경** (29일차, 가온센터), **임성재** (30일차, 동서울센터), **이선희** (31일차, 충북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대광** (32일차, 포천나눔의집센터), **추경진** (33일차, 노들센터), **박영석** (33일차, 오방센터), **이민재** (34일차, 강동센터), **김영수** (35일차, 성동센터), **임종운** (35일차, 성동센터), 이상도 (36일차, 포천나눔의집센터), **신선옥** (37일차, 용산행복센터), **김해룡** (38일차, 동작센터), **김홍기** (39일차, 노들장애인야학 권리중심공공일자리노동자), **김민석** (40일차, 진주센터), **박동섭** (41일차, 민들레센터), **김정방** (41일차, 민들레센터인권실천단불나비), **강북례** (42일차, 한뇌협 경기지부), **양준호** (43일차, 민들레센터), **김솔** (43일차, 한뇌협 인천지부), **류승철** (44일차, 남은자센터), **김선재** (44일차, 포천나눔의집센터), **박상호** (45일차, 경남협의회), **이정렬** (46일차, 중랑센터), **신동문** (47일차, 민들레센터), **서권일** (47일차, 민들레센터), **김진수** (48일차, 김포센터), **경신호** (49일차, 포천나눔의집센터), **김영록** (50일차, 일산서구

햇빛촌센터), **김동림** (51일차, 김포장애인야학), **김동예** (52일차, 수지센터), **권은춘** (53일차, 충북장차연), **권영욱** (54일차, 화성동부센터), **엄의수** (55일차, 소담센터), **김재민** (56일차, 대구질라라비장애인야학), **김재원** (56일차, 인강원), **이영애** (57일차, 노들장애인야학), **주재영** (58일차, 인천센터), **오명진** (59일차, 민들레장애인야학), **김선철** (59일차, 민들레장애인야학), **박영일** (60일차, 노들센터), **안일환** (61일차, 서울시협의회), **조재범** (62일차, 센터판), **한유열** (63일차, 아람센터), **조인구** (64일차, 은평센터), **송건섭** (65일차, 포천나눔의집센터), **김재환** (66일차, 이음센터), **탁신** (이도훈) (67일차, 김포센터), **이성민** (68일차, 성동센터), **이라나** (69일차, 중구센터), **조효영** (70일차, 김해센터), **장애경** (71일차, 노들장애인야학), **한태섭** (72일차, 중구센터권리중심공공일자리노동자), **홍성훈** (73일차, 성북센터), **안지완** (74일차, 성동센터), **정병환** (75일차, 민들레장애인야학), **김재학** (76일차, 민들레장애인야학), **안재성** (77일차, 무안센터), **송지연** (78일차, 피플퍼스트성북센터), **김정훈** (79일차, 안산단원센터), **박성준** (80일차, 가치이룸동대문센터), **최진기** (81일차, 진해센터), **최영동** (82일차, 진영센터), **박창재** (83일차, 포천나눔의집센터), **오석민** (84일차, 은평센터), **김병관** (85일차, 다사센터), **박주원** (86일차, 센터판권리중심공공일자리노동자), 이철재 (87일차, 포천나눔의집센터), **이진원** (88일차, 경남센터협의회), **오태경** (89일차, 한울림센터), **김승환** (90일차, 인천센터), **김용균** (91일차, 가온센터), **이진우** (92일차, 서대문센터), **주상은** (93일차, 경남정신센터), **임영채** (94일차, 안산단원센터), **문혁** (95일차, 피플퍼스트성북센터), **이병호** (96일차, 두리센터권리중심공공일자리노동자), **신경수** (97일차, 민들레센터권익옹호팀장), **하연주** (98일차, 밀양장애인평생학교교장), **김경용** (99일차, 가온센터), **빈운경** (100일차, 원주센터), **박누리** (101일차, 노들장애인야학), **염철수** (102일차, 한울림센터), **김운용** (103일차, 다릿돌센터), **윤태일** (104일차, 동서울센터권리중심공공일자리노동자), **이상용** (105일차, 노들센터권익옹호), **김민정** (106일차, 노들센터권익옹호), **박지호** (107일차, 노들센터권익옹호), **이슬하** (108일차, 비마이너), **서지원** (109일차, 장애여성공감), **이상우** (110일차, 노들센터권익옹호), **소형민** (111일차,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박병근** (112일차, 동서울센터권리중심공공일자리노동자), **권오승** (113일차, 원주센터), **민승호** (114일차, 은평센터권리중심공공일자리노동자), **민승찬** (114일차, 은평센터권리중심공공일자리노동자), **김희철** (115일차, 원주센터), **이창영** (116일차, 이음센터권리중심공공일자리노동자), **박순남** (117일차, 바래미야학), **박철균** (118일차, 전장연), **이창균** (119일차, 에바다센터), **김상진** (120일차, 이음센터권리중심공공일자리노동자), **김대범** (121일차,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조은상** (122일차, 안산상록수센터), **홍원희** (123일차, 마포가온센터), **풍경** (124일차, 전북장차연), **신정철** (125일차, 일산햇빛촌센터권리중심공공일자리노동자), **박기진** (126일차, 용산행복센터권리중심공공일자리노동자), **이건희** (127일차, 노원중증센터), **박경미** (128일차, 광진센터), **이종민** (129일차, 송파솔루션센터), **진성선** (130일차, 장애여성공감), **권기대** (131일차, 우리하나은평센터), **이학인** (132일차, 야학협의회), **조동현** (133일차, 전북중증센터), **곽효철** (133일차, 전북중증센터), **최규정** (134일차, 마포가온센터), **방재환** (135일차, 노들장애인야학), **손영은** (136일차, 새벽지기센터), **송현우** (137일차, 이천이삭센터), **왕성철** (138일차, 인천센터), **김도현** (139일차, 노들장애인야학), **한정우** (140일차, 노들장애인야학), **구용호** (140일차, 노들장애인야학), **이상근** (141일차, 질라라비야학)

활동 들여다보기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 쟁취 <지하철 투쟁>







<삼각지역 농성장>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위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삭발투쟁, 오체투지 할 수 있는 것을 다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장애인권리예산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삭발투쟁을 진행한 삼각지역 지하1층에 2022년 11월 21일 농성장을 차렸습니다. 예결위 심의가 진행되는 기간 삼각지역 농성장에서 문화제와 집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역할에 관한 책무를 강조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이 이루어졌지만, 끝내 기획재정부의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전장연이 요구한 1조3천억 대비 0.8%인 10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년을 투쟁했는데 믿기 않을 만큼 저참한 결과에 망연자실했지만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420슬로건처럼 우리는 장애인권리예산·입법 쟁취 2023년 1차 지하철 행동을 계획하며 농성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농성장을 차리기 전인 5월 발달.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연이은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서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를 설치하고 49재 기간 동안 추모기간(2022년 5월 26일 ~ 6월 2일)을 운영하였습니다. 추모물품을 반입하기 위해 수시간 싸워 만들어진 분향소에는 발달장애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국회의원들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추모기도회와 49재를 열어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과 정부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발달·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을 국가가 책임질 것을 촉구하며, 발달·중증장애인과 함께 돌아가신 가족을 위로하였습니다. 삼각지역에 울려 퍼지는 염불소리는 국가 책임이 부재한 자리에 종교계의 위로였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및 사법대응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대해 "**국민 발을 묶어서 의사를 관철하는 상황은 엄격히 대처하겠다**"며 "**불법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 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하철 시위를 불법으로 단정하고, 장애인권리를 위한 실천적 행동을 흉악범을 다루는 방식으로 대하는 서울경찰청장은 사과해야 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전장연의 지하철행동이 위법이라며 출석하여 조사받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같은 편의시설 미제공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편의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며, 법 집행을 하는 국가기관임에도 오히려 자신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리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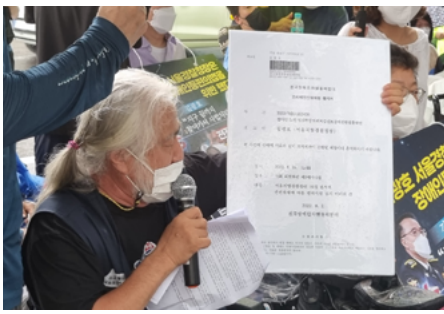
이 과정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춘 남대문경찰서가 전장연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되었으며, 출석요구 받은 활동가들은 대부분 조사를 마쳤지만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서울 관내 경찰서에 편의시설이 갖출 때까지 자진출석을 거부하는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장연은 '**서울경찰청 장애인차별 불법행위에 관한 모의재판**'을 진행하여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적인 정당한 편의시설제공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외 서울교통공사의 3000만원 민사손해배상소송에 법원의 조정결정이 있었지만 공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추가 손배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정시가 생명이라며 1분 지체할 수 없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에 무정차하는 지하철, 벌금과 손배로 시민권을 탄압을 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그리고 정부에 전장연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활동 들여다보기
기획투쟁사업





탈시설장애인당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을 비롯하여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무리들의 당(黨)이 아니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당(當)연한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당(當)으로 2022년 양대선거(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기간 내 장애인정책 의제화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 로고 투표, 후보자 등록, 경선, 후보 선출과정을 통해 장애인이 정치인의 들러리가 아닌 정치적 주체로서의 활동을 만들었습니다.



이동권 사진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를 계기로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21년을 맞이함에도, 한국 사회의 장애인 이동권은 여전히 참담한 수준입니다. 교통약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의 도입 수준은 10대 중 3대에도 미치지 않는 28.4%(2020.9.기준)이고,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는 장애인콜택시 또한 법정대수를 지키지 않고 있는 지역이 대다수이며, 그마저도 운영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공공성은 실종된 상황입니다. 이런 장애인 이동권의 실태와 이동권 투쟁의 역사, 향후 과제를 사진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전시 외 이동권 투쟁영상 상영과 시각장애인 전시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사진음성해설 큐알코드를 배치하였습니다.




장 애 인 이 동 권 사 진 전

'버스를 타자'
장애인이동권 21년의 외침

일시 2022년 1월 17일(월) ~ 21일(금)
(예약식 1월 17일(월) 오전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로비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문의 02-739-1420

후원 국민 488401-01-22021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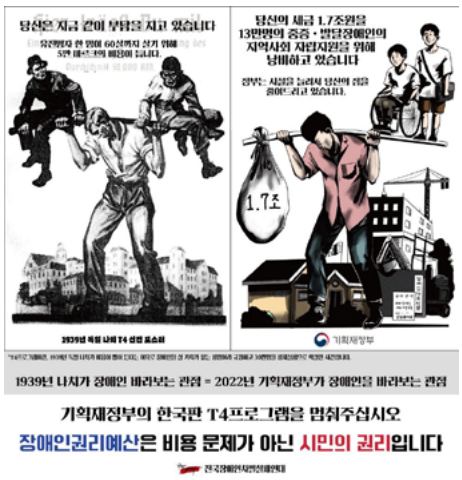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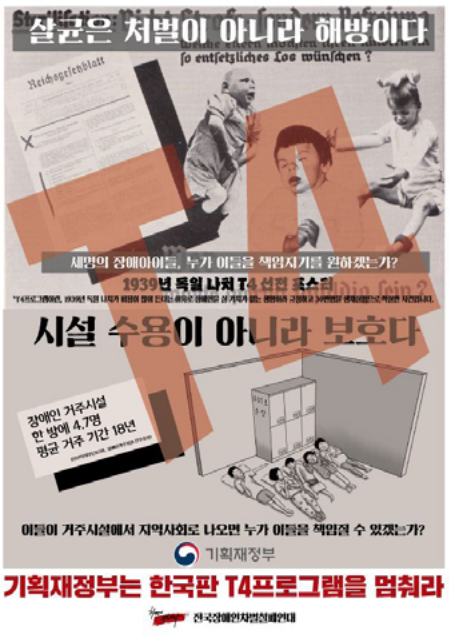
한국판 T4 프로그램 철폐

1939년 독일 나치는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30만 명의 장애인을 학살하는 'T4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한 명의 장애인에게 매일 국가가 쓰는 돈 5.5MR으로 4인 가족이 살 수 있다'는 나치의 선전 문구는 2022년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가 외치는 '비용의 문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장애인권리예산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 예산임에도 기획재정부는 '비용'을 이유로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기본권보다 비용을 우선시하는 기획재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바로 한국판 T4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면담 발언은 장애인의 기본권을 비용을 이유로 유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한국판 T4프로그램을 멈춰야 합니다. **비용을 이유로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한국판 T4프로그램을 멈추고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라!**

















토론회.간담회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22.2.11)
- 송파세모녀 8주기, 문재인정부 빈곤복지공약 이행 평가 및 대선후보 공약 평가 토론회 (2022.2.25)
-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국회의원 이종성,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2022.4.1)
-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 토론회 (2022.4.8)
- 국가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개인예산제 실효성 확보 방안 (국회의원 김예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시각 3개 단체)(2022.4.18)
- 장애인권리예산 중앙책임강화 토론회 자료_ 1회차 이동권(지역 격차)(2022.4.27)
- 국가 주도의 탈시설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2022.5.11)
- 제2차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정책제안 토론회 "문명 도시의 전제조건을 묻다" (2022.6.24)
-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2022.7.29.)
- 중증 중복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증언대회 및 토론회 (2022.9.14)
- UN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권리 경기도 실현 방안 정책토론회 (2022.9.14)
-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 UN CRPD 최종견해를 활용한 장애인권 증진 (2022.10.28.)
- 국제탈시설컨퍼런스 "각 국 유엔 탈시설 권고 이행 현황과 방향" (2022.11.3)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위한 이동권 실태조사 보고회 (2022.11.10)
- [토론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위한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보고회(2022.11.10.)
-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정책토론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22.11.30)
- 발달장애인법의 한계와 개정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2022.12.14)
-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 및 확대를 위한 토론회 “중증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 제정, 지금 왜 필요한가”(2022.12.23)

21대 국회 장애인권리보장 입법투쟁

장애인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제도·예산을 쟁취하기 위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면담과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비장애중심주의 사회와 행정부·입법부를 변화시키는 대중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장애인권리입법 제개정 활동

-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농성 및 국회의원 면담 추진, 법률안 공청회, 정책 토론회 개최 등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국회 이동권 사진전, 개정안 발의,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장콜원정대를 통한 지역 조직 등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개정**
  국회 면담, 캠페인, 토론회, 개정안 발의 등
-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중증장애인고용특별법 제정**
  정부부처 면담,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DP 행진,
  취업박람회 및 토론회 개최 등
- **주거약자지원법 개정·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제정**
  지원주택 컨퍼런스, 주거기본권TF 활동, 기자회견 진행 등
-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항의방문 기자회견 등
- **공직선거법 개정**
  차별진정, 참정권 보장 기자회견 등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실효성 있는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등







함께 한 연대단체

전국민중행동
빈곤철폐를 위한 사회연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017빈곤철폐의날 &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쟁취 공동행동
기초법개정공동행동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응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실천하는 연대체로서 전장연은 공동대표단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임기였던 2022년 상반기, 이제는 통과됐어야 할 차별금지법은 끝내 국회의 담을 넘지 못했습니다. 2021년 부산에서 서울까지 두 활동가가 400킬로 걸으며 차별금지법을 알렸습니다. 국회 앞에서는 2022년 평등텐트촌 농성을 차리고 400킬로를 걸었던 두 활동가는 곡기를 끊으며 단식행동을 했습니다. 전장연도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릴레이 단식행동에 동참했습니다. 끼니를 거르며 국회 담벼락에 둘러앉은 우리는 국회의원 한명 한명에게 '차별금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다시 미루어졌지만 **"함께 싸운 우리가 이긴다. 평등으로 가자!"** 구호는 사라지지 않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울려 퍼질 것입니다.





1017빈곤철폐의날 &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입니다. 한국의 반빈곤, 노동, 사회단체는 이날을 '빈곤철폐의 날'이라 명명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불평등은 재난이다"이라는 슬로건으로 924기후위기행진 - 1001주거권대행진 - 1017빈곤철폐의날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노점상, 철거민, 홈리스, 쪽방주민, 장애인, 노동자들이 연대와 투쟁으로 빈곤문제에 저항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빈곤의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투쟁은 계속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시원 화재 참사와 반지하 수해 참사가 연이어 발생했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늘리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전년 대비 27%를 삭감했습니다. 이에 저항하기 위해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이 꾸려졌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전액 복구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영하의 맹추위에서 69일간 진행된 농성은 삭감된 예산 전체를 회복하지 못했지만, 주거권이라는 큰 싸움을 시작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집니다. 주거는 권리임을 알리는 싸움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만이 아닌 시민이 우리의 삶과 미래를 위한 길, 주거권의 길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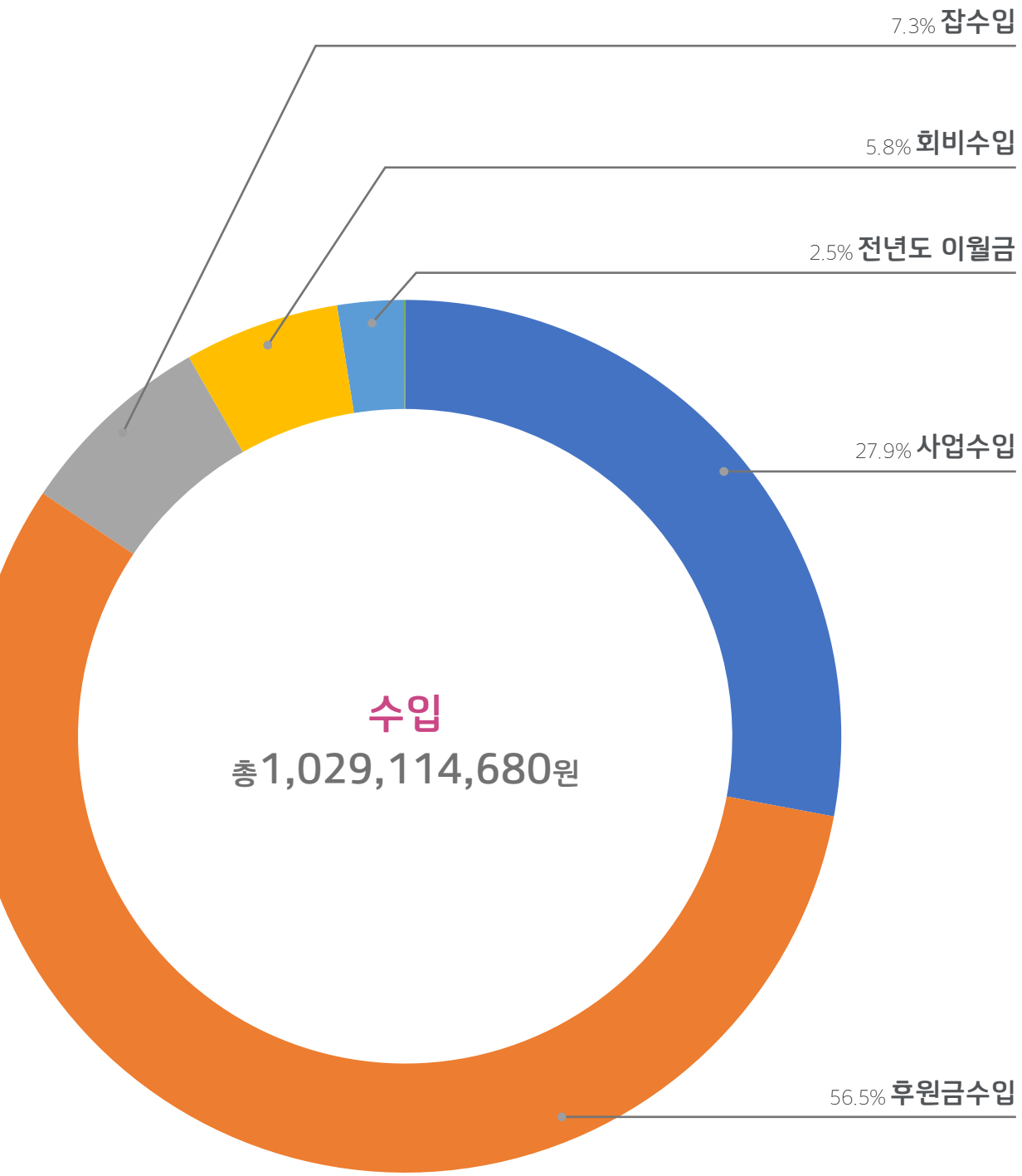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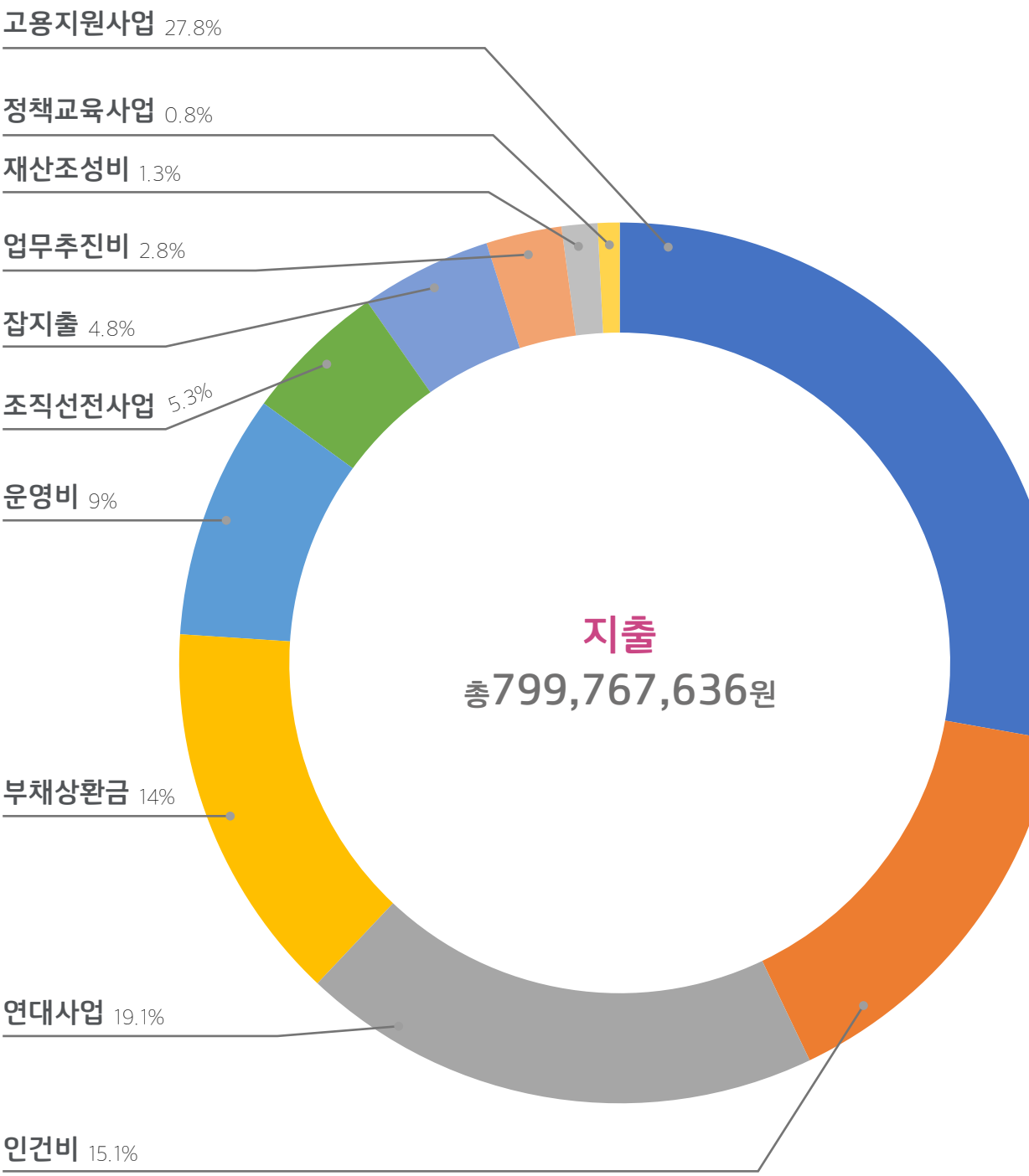
서울퀴어문화축제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서울퀴어문화축제는 기대만큼 뜨거웠습니다. 참여한 모든 부스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올해를 뜨겁게 관통하고 있는 전장연 부스의 인기도 대단했습니다. 사다리를 걸고 인증샷 찍기, 지하철 지연 증명서를 패러디한 권리지연증명서 발급, 지하철 타기 행동을 하면서 받은 다양한 혐오·차별 현황판, 420티셔츠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판매 등을 통해 전장연 운동과 사회운동에 관심 있는 많은 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장연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행성인)가 자체적으로 꾸민 '이상한 연대의 행진단'은 시민사회인권노동단체와 시민 2,000여 명과 함께 행진 뒷열을 책임졌습니다. 내년 퀴어축제에서 만나요~



재정결산




고용지원사업 27.8%
정책교육사업 0.8%
재산조성비 1.3%
업무추진비 2.8%
잡지출 4.8%
조직선전사업 5.3%
운영비 9%
부채상환금 14%
연대사업 19.1%
인건비 15.1%
지출
총799,767,636원

후원해 주신 분들

후원회원

강경근 강경욱 강금조 강기영 강기철 강나루 강남규 강대형 강동수 강명순 강미량 강미선 강민정 강범창 강병재 강병호
강보영 강서희 강석만 강성덕 강소라 강수민 강영민 강예슬 강옥삼 강용균 강유미 강윤미 강인수 강인숙 강정숙 강정아
강지선 강지영 강춘경 강태봉 강한들 강한별 강혜림 강혜민 강호석 고경주 고경희 고동현 고미란 고민경 고영호 고은미
고재필 고정순 고제헌 고지연 고진선 고춘완 고현욱 고혜린 고희권 고희석 곽미래 곽보매 곽이경 곽해찬 구미숙 구민재
구본권 구영지 구 윤 구자숙 구형구 권달주 권성철 권성태 권수봉 권수정 권수현 권순교 권순재 권영은 권영주 권오승
권오형 권용식 권용희 권일한 권재수 권정환 권주영 권형숙 권혜원 금혜지 기은아 기형욱 김가경 김건옥 김건하 김겸손
김경민 김경선 김경수 김경연 김경원 김경표 김경화 김경희 김국환 김권호 김규호 김기원 김나혜 김남규 김다연 김다영
김다은 김달님 김대영 김대용 김동근 김동현 김두리 김두림 김명남 김명문 김명숙 김명재 김명준 김명학 김미나 김미선
김미성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연 김미영 김미옥 김미정 김미하 김미해 김민경 김민기 김민아 김민정 김민주 김민진
김박가온 김범헌 김병기 김병용 김병용 김병일 김병혁 김보람 김보민 김보순 김보영 김보형 김봉수 김분희 김상미 김상윤
김상은 김상진 김상철 김상호 김상희 김서영 김서현 김석준 김선득 김선명 김선숙 김선양 김선영 김선이 김선정 김선철
김선호 김선화 김성득 김성록 김성미 김성순 김성영 김성우 김성환 김성훈 김성희 김세연 김세진 김소담 김소연 김소영
김소유 김소희 김송이 김수미 김수민 김수아 김수연 김수정 김수진 김수현 김숙이 김숙자 김숙향 김숙현 김숙희 김승규
김승현 김승혜 김승환 김신애 김아리 김양화 김연숙 김연재 김연중 김영란 김영미 김영범 김영선 김영수 김영승 김영신
김영옥 김영일 김영조 김영주 김영환 김영효 김예리 김예림 김예원 김예은 김예진 김용섭 김우진 김 원 김원우 김원태
김유경 김유리 김유미 김유정 김유진 김윤정 김윤지 김윤진 김윤형 김은경 김은동 김은숙 김은지 김은진 김은희 김을용
김의태 김인배 김인후 김일준 김재우 김재진 김재훈 김 정 김정민 김정선 김정숙 김정순 김정식 김정아 김정우 김정은
김정준 김정현 김정훈 김정희 김제이 김종명 김종배 김종이 김종철 김종호 김종훈 김주연 김 준 김준식 김준우 김지민
김지안 김지연 김지영 김지원 김지형 김지호 김지희 김진동 김진석 김진수 김진아 김진억 김진영 김진우 김진태 김진현
김진호 김진후 김찬솔 김찬우 김창길 김창오 김창의 김채준 김춘희 김탄진 김태남 김태령 김태미 김태은 김태현 김필순
김한솔 김한순 김한슬 김항기 김해경 김헵시바 김현 김현애 김현영 김현자 김현종 김현주 김현지 김현직 김형기 김형석
김형수 김형식 김형자 김형탁 김혜경 김혜미 김혜영 김혜주 김호일 김호진 김홍선 김화용 김효명 김효선 김효송 김효은
김효정 김휘주 김희경 김희선 김희성 김희원 김희은 김희정 김희지 나경환 나세웅 나윤경 나혜민 남궁경 남궁은 남동현
남명화 남상팔 남세현 남 송 남재욱 남지영 남호범 남효숙 노경근 노범식 노상환 노한나 노혜정 돈경윤 라동철 라혜원
류경원 류다슬 류다영 류성혜 류재욱 류제웅 류혜영 마상욱 맹보명 맹영희 명관호 명수정 모대원 문경숙 문경희 문덕순
문도운 문미령 문미순 문민기 문수창 문애린 문영준 문예진 문윤정 문은주 문재형 문현일 문호영 민경석 민경환 민병래
민영선 민용순 박가영 박가현 박경룡 박경숙 박경준 박경화 박계순 박고운 박근태 박기호 박누리 박다솜 박다인 박대철
박동수 박명은 박미란 박미선 박미애 박미영 박미옥 박미정 박미향 박미현 박미홍 박민관 박민지 박병삼 박병섭 박병우
박상국 박선구 박선미 박선아 박성애 박성준 박성한 박세정 박소라 박소영 박수연 박수진 박수현 박숙자 박순이 박슬기
박승민 박시동 박신남 박야일 박양수 박영민 박영수 박영인 박 용 박용서 박우영 박원서 박윤정 박은경 박은숙 박은영
박은정 박은주 박은혜 박은희 박이수 박일수 박임숙 박재범 박재영 박재희 박정미 박정수 박정순 박정신 박정연 박정원
박정인 박종영 박주희 박준성 박준형 박지아 박지영 박지혁 박지현 박지호 박지후 박진주 박진희 박채형 박철현 박춘환
박태환 박하비 박학룡 박한솔 박한울 박해민 박현숙 박현순 박현정 박현주 박현희 박형대 박형준 박혜수 박혜원 박혜정
박혜진 박호순 박홍열 박효경 박효선 박희진 방소영 방수진 배꽃잎 배보람 배성아 배성훈 배소윤 배소희 배신광 배영진
배영철 배용진 배용호 배일훈 배종령 배한나 배혜원 배희철 백경순 백동숙 백서윤 백숙경 백순옥 백승열 백원우 백은옥
백종륜 백 준 백화현 변강석 변종태 변해숙 서경덕 서명아 서묘경 서미경 서보원 서보익 서석우 서성민 서성진 서승주
서연남 서영자 서욱일 서원 선우두빈 서유석 서윤수 서은경 서일영 서장우 서준형 서지현 서 진 서춘희 서하연 서현아
서혜연 석진숙 선명규 선휘성 성경모 성기태 성유진 성재호 성준석 성지혜 성치환 성현주 소용희 손꿈이 손덕찬 손미현
손민희 손승현 손여정 손유재 손윤경 손은경 손정희 손주영 손희정 송경미 송경아 송경영 송기복 송기애 송나영 송다솜
송미숙 송미진 송부연 송석길 송송이 송순영 송순희 송영미 송은석 송지선 송치민 송현미 송현민 송 화 송화영 송흥남
신나리 신다솜 신동현 신미정 신민기 신민정 신상하 신석호 신선식 신선화 신수진 신승미 신승철 신영수 신영숙 신우리
신웅식 신은선 신은주 신은희 신지영 신지은 신철민 신현봉 신혜선 신희선 심신아 심예진 심임철 심혜경 심희경 심희정
안경희 안관영 안규백 안대환 안동수 안병국 안수진 안승용 안 영 안은경 안재만 안정원 안주환 안채완 안해영 안향미
안형진 안혜린 안혜림 안희제 안희표 애 나 양가영 양공열 양동민 양수철 양승민 양승식 양승욱 양예은 양유진 양은선
양은숙 양은희 양정화 양진원 양창모 양해림 양혜정 양혜진 엄선호 엄수빈 엄원주 엄주영 여수진 여준성 여혜경 연정아
염경미 예그림 오동철 오명숙 오명연 오상진 오성희 오세연 오수미 오수진 오승미 오연숙 오윤아 오윤혜 오 은 오은경
오은정 오은혜 오재형 오정자 오창록 오현주 오형율 왕수정 용순옥 우나리 우석현 우선미 우성제 우수영 우은주 원종준
위대현 위유정 유 건 유경아 유금문 유남길 유동숙 유동철 유동호 유병두 유봉환 유상준 유상철 유승민 유승희 유영호
유용식 유은정 유재숙 유제선 유지연 유지형 유진우 유청우 유태룡 유필조 유하영 유하은 유해록 육기엽 윤관주 윤광섭
윤미경 윤미란 윤미령 윤민영 윤석희 윤소라 윤아름 윤여진 윤영태 윤예나 윤용석 윤은숙 윤은화 윤재희 윤정아 윤정희
윤종기 윤지선 윤지성 윤 진 윤충열 윤해정 윤현정 윤현희 윤혜선 이강식 이강훈 이건희 이경민 이경순 이경아 이경옥

이경자 이경준 이경호 이경훈 이경희 이고은 이광현 이규영 이규학 이기쁨 이기중 이나래 이나영 이난희 이누리 이다인
이다혜 이도건 이도엽 이도훈 이동규 이동근 이동림 이동수 이동욱 이동하 이래은 이리나 이명숙 이명순 이명신 이문열
이미경 이미령 이미리암 이미숙 이미정 이민숙 이민재 이민정 이민주 이범여 이병선 이병화 이보나 이보라 이부영 이상미
이상오 이상우 이상욱 이상진 이상현 이상호 이상화 이서윤 이서인 이선정 이선진 이성우 이성호 이성희 이소망 이수민
이수연 이수진 이수현 이순임 이슬기 이슬비 이슬하 이승한 이승헌 이승희 이시진 이알찬 이어진 이연수 이연주 이영남
이영은 이영주 이영한 이옥분 이용기 이원광 이원숙 이원자 이원진 이유나 이유선 이유송 이유재 이윤선 이윤성 이윤화
이율리 이은경 이은미 이은생 이은영 이은지 이은희 이인규 이인숙 이자민 이자희 이재령 이재만 이재원 이재은 이재호
이정미 이정열 이정하 이정현 이정화 이정희 이제형 이종광 이종란 이종현 이주연 이준범 이지연 이지영 이지은 이지형
이지혜 이진숙 이진희 이참슬 이창균 이창근 이창희 이철호 이철환 이충선 이태섭 이태융 이파람 이판오 이학성 이학준
이한 이한바다 이한열 이해광 이해수 이해인 이해평 이현미 이현숙 이현아 이현애 이현우 이현정 이현주 이현지 이현진
이형민 이형숙 이혜경 이혜숙 이혜우 이혜정 이호진 이호헌 이화경 이효리 이효미 이효선 이효재 이훈삼 이희련 이희섭
이희예 이희옥 인예지 임규석 임동재 임미영 임민희 임병일 임산하 임선정 임성택 임소연 임소영 임소원 임소형 임수민
임순옥 임영주 임오규 임원영 임원택 임유청 임윤희 임은영 임정호 임준홍 임지원 임지호 임진영 임창섭 임현경 임현지
임효진 장광식 장 권 장근천 장누리 장동현 장미경 장미연 장미정 장민경 장민제 장석원 장선이 장소령 장여진 장예정
장옥란 장용범 장은정 장은하 장인숙 장재화 장정우 장진성 장태린 장태수 장호철 장효성 장희경 장희국 전광철 전근배
전대진 전미진 전 민 전민지 전병준 전병진 전서희 전선주 전소현 전승희 전유림 전정아 전 준 전지은 전진은 전하윤
전 향 전혜련 전희진 정건영 정다운 정다흰 정대성 정라영 정미영 정미진 정민석 정민주 정범채 정병오 정상욱 정상희
정성조 정성철 정세옥 정소영 정 순 정순진 정승민 정양미 정여진 정연욱 정영미 정영은 정영주 정용식 정유경 정유리
정윤금 정은영 정은희 정재경 정재국 정재우 정재원 정정임 정종완 정준수 정지선 정지용 정진영 정찬길 정창환 정채환
정쾌희 정태회 정택준 정하원 정한별 정한석 정현수 정현숙 정현지 정혜금 정혜란 정혜린 정혜림 정혜원 정혜종 정혜진
정호정 제갈은숙 조경진 조규식 조미영 조미정 조민정 조석영 조선영 조성동 조성형 조시은 조영선 조옥이 조원경 조유림
조윤경 조은별 조은영 조은지 조의래 조익상 조재훈 조점미 조정원 조종묵 조지은 조하나 조한성 조현경 조현민 조현수
조혜인 조호연 조환웅 조희라 조희영 주미순 주범중 주종한 지덕근 지민주 지연주 지용수 지윤진 지혜준 진기영 진병철
진영란 진윤경 차명수 차명이 차현숙 창지웅 채운석 천강희 천기복 천예솔 천정숙 천혜정 천희진 최경림 최경숙 최경호
최고은 최관용 최근우 최다은 최다희 최단희 최동운 최문호 최미경 최민경 최병엽 최병희 최보람 최보희 최복천 최상원
최서윤 최 성 최성애 최성희 최세리 최수선 최수진 최순희 최아름 최영조 최예림 최예지 최용기 최우영 최원자 최유선
최윤필 최윤혜 최은미 최은비 최은아 최은지 최재경 최정주 최종민 최주영 최지영 최지인 최진관 최진규 최진숙 최진우
최진욱 최하나 최한별 최현미 최현윤 최현정 최혜경 최혜영 최효진 최희구 최희주 추경미 추미선 추진호 태다미 태미화
편미주 하유나 하은빈 하인숙 하주화 하진용 하태경 하형석 한명신 한명자 한민수 한바란 한상명 한선경 한성숙 한성찬
한송희 한예슬 한자훈 한재현 한재호 한지연 한지영 한지현 한하늘 한현숙 한혜경 한혜정 한희정 허 란 허만웅 허순강
허승규 허승대 허영진 허준기 허지영 허진선 현나민 현웅섭 홍관희 홍기돈 홍명희 홍미소 홍서연 홍석경 홍성명 홍성수
홍수민 홍순희 홍슬기 홍승자 홍정현 홍정희 홍지숙 홍차복 홍철민 화소영 황민국 황민주 황병석 황보름 황서영 황선민
황선영 황소윤 황승애 황시인 황예지 황윤재 황인준 황인현 황재연 황정원 황종원 황지혜 황푸하 황혜림 황혜선 황 휘
황희정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LEAVE NO ONE BEHIND

후원해 주신 분들

장비회원

갈홍식 강가라연 강미선 강민자 강민호 강수문 강승수 강연철 강영민 강은경 강의영 강진경 강푸른 강현석 강현철
강형석 강혜민 강효석 강희석 계기석 고나영 고병권 고장섭 고제량 고현욱 공대식 공태영 공태윤 곽남희 곽보연 곽상길
곽 철 구경서 구예슬 구용호 권달주 권순화 권영욱 권오준 권정미 권지은 권지혜 권지훈 권태윤 권하늘 권해효 권혜진
김각균 김경민 김경수 김경우 김경원 김계호 김광빈 김광호 김규원 김나라 김난슬 김다연 김대권 김대솔 김대현 김도경
김도은 김동림 김동예 김동옥 김동현 김라현 김미경 김미선 김미영 김미현 김민기 김민아 김민정 김민주 김병용 김병태
김보연 김복음 김상육 김선교 김선심 김선아 김선영 김선이 김선태 김선형 김선화 김선희 김성심 김성연 김성훈 김소영
김수경 김수아 김수원 김수정 김수진 김수현 김순화 김승기 김승현 김시온 김애나 김연주 김영란 김영미 김영순 김영옥
김영이 김예진 김용돈 김용란 김용섭 김용표 김용화 김우진 김유미 김윤영 김은비 김은애 김은혜 김이오 김인태 김재설
김재왕 김재환 김정 김정아 김정은 김정하 김정훈 김정희원 김종수 김종숙 김종환 김주희 김준우 김지나 김지연 김지영
김지웅 김지윤 김지은 김지혜 김지훈 김진석 김진수 김진아 김진영 김진우 김진희 김찬희 김창현 김철환 김치훈 김태일
김하늬 김하빈 김하종 김현준 김현지 김현진 김형기 김형진 김혜윤 김혜인 김호진 김화자 김희정 김희주 김희찬 나 무
나영정 나 은 나해니 남경훈 남기근 남병준 남승진 남아림 남학연 노미재 노유리 류다영 류병희 류수연 류은애 류재병
명근철 모경훈 목영대 문경인 문경희 문기학 문선희 문소윤 문애린 문영준 문윤정 문정희 문진영 문 혁 문형국 민경선
민병일 민아영 박경미 박경석 박고운 박근태 박나윤 박남석 박다인 박명철 박무웅 박미아 박미주 박미현 박민석 박반석
박상영 박상환 박서연 박서희 박선하 박성빈 박성인 박세레나 박세중 박소영 박소현 박송이 박수진 박시백 박영민 박온슬
박원민 박유선 박은경 박은정 박정미 박정숙 박정용 박정재 박정희 박주석 박주원 박준혁 박준호 박지선 박지웅 박지호
박지희 박진식 박진제 박진하 박창재 박철균 박춘환 박춘희 박하순 박혜은 박효진 방기홍 배미영 배복주 배소영 배영철
배재현 배한주 배회경 백봉숙 백종근 백진하 백창원 변강석 변경숙 변미숙 변영주 변해영 변희정 복계미 봉재연 빈주경
서명석 서민형 서성윤 서수정 서원석 서재현 석용래 석윤아 성가연 성수연 성시선 손거정 손영식 손치아 송건섭 송기춘
송석희 송영욱 송용헌 송은영 송은하 송정준 송향숙 송현미 송현우 송호천 신나리 신동성 신병훈 신봉준 신소영 신예원
신원범 신원제 신은진 신인기 신정수 신정해 신준영 신채윤 신현호 신혜교 신효숭 심이영 심지선 심희경 아동은 안명숙
안미자 안선영 안소진 안영희 안인대 안인숙 안정혁 안준호 안지영 안지완 안태진 양두리 양문령 양선영 양세빛 양은주
양정호 양현성 양현우 양희석 양희정 엄미경 엄제현 여 름 여은정 여인덕 염미순 오광식 오만성 오미광 오상만 오성경
오성환 오연희 오영남 오영현 오은주 오지은 오진호 오현숙 왕주현 용순옥 우나리 우수영 우정규 우진아 우해중 우희찬
원소연 원예은 원향미 원현우 위영서 유가희 유금문 유민희 유 선 유성원 유승권 유영미 유영순 유정인 유진아 유진우
윤국진 윤 남 윤미례 윤민진 윤성근 윤성호 윤승환 윤애숙 윤재희 윤정훈 윤혜진 윤효진 이가연 이가온 이건희 이경미
이경수 이경호 이경희 이광민 이광철 이구원 이 권 이귀남 이규식 이기수 이길수 이나라 이나래 이다물 이다미 이도영
이도훈 이동건 이두영 이리나 이미경 이미영 이미예 이미정 이민재 이민휘 이범민 이범진 이 볕 이 봄 이봉연 이부덕
이상도 이상목 이상무 이상민 이상수 이상우 이상윤 이석준 이선이 이선희 이선희 이성도 이성민 이성찬 이성희 이세희
이소영 이수미 이순옥 이슬기 이승아 이승연 이승일 이승재 이승한 이승환 이알찬 이연옥 이연호 이영봉 이영섭 이영욱
이요한 이우연 이원교 이유림 이유정 이유진 이은명 이은정 이은주 이은지 이은호 이인화 이재민 이재환 이정미 이정빈
이정연 이정열 이정하 이종란 이종운 이 준 이준기 이준용 이준의 이지연 이지훈 이 진 이진우 이진희 이창균 이창현
이창형 이창호 이태규 이학인 이한열 이현경 이현선 이현숙 이현아 이현주 이형숙 이혜규 이효인 이효진 이 훈 이희진
임경미 임규완 임대호 임동재 임병준 임석빈 임선희 임성철 임소라 임소연 임소영 임소정 임수연 임수희 임영채 임영희
임정은 임해리 임현숙 임형찬 장경애 장남길 장민경 장소라 장수인 장영배 장윤성 장은지 장정아 장현구 장혜진 장호경
장희영 전란희 전윤선 전은경 전은기 전은배 전인선 전정희 전하윤 정강용 정경호 정기열 정다운 정동은 정만훈 정민성
정민형 정보라 정상욱 정성룡 정성철 정승배 정승원 정애경 정연주 정영란 정우영 정우준 정의로 정인영 정재남 정재웅
정재현 정주희 정찬영 정창조 정하연 정해선 정현순 정현주 조경미 조미경 조미영 조사랑 조성실 조성은 조성현 조수안
조수연 조영규 조용배 조용성 조원천 조원하 조윤경 조윤숙 조은별 조은상 조은소리 조은혜 조인식 조장원 조현아 조홍석
조희은 좌혜경 주동석 주성호 진성선 진영인 진은선 진효근 차민호 차한선 채명훈 채 민 채지윤 천관희 최강민 최경화
최고동 최귀순 최나은 최다영 최덕문 최동운 최미정 최민경 최병조 최봉기 최소양 최수정 최수진 최영은 최용기 최은선
최은옥 최은정 최은주 최재선 최진영 최춘자 최한별 최현아 최호림 최흥종 최희진 추경진 탁윤정 하상윤 하상호 하지연
하태우 한국호 한규선 한명희 한상희 한성희 한승우 한승희 한재호 한종문 한태경 한해나 한혜원 허문경 허 선 허영진
허 윤 허윤정 허현덕 허혜영 홍성원 홍수민 홍은전 홍이수 홍일동 홍정민 홍제리 홍진수 황금산 황나라 황민규 황선원
황수영 황용하 황유숙 황은성 황인현 황준환 황한나 황희정 황희준

장비회원이 되어주세요

전장연 후원 안내

전장연은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지양하며,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전장연 정기후원으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세상으로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후원회원

전장연에 정기 후원을 약정하지만
(피)선거권 및 대의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비회원

장비회원은 지역 장차연에 회비를 납부하고
(피)선거권 및 대의원으로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
전장연의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개인회원이 '장비회원'입니다.

'장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줄임말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으로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장비'는 '장대비'의 제주도 방언이기도 합니다. 장비회원이 '차별로 갈라지고 메마른 대지를 녹이는 장대비'가 되자는 뜻을 함께 담았습니다.

기업의 후원이나 정부 지원 없이
후원하시는 분들의 마음으로만 활동합니다

큐알코드 찍고
후원회원 가입하기!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권리 보장 투쟁에 힘을 실어주세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2년 연간활동보고서

발행년월
2023년 2월

펴낸곳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소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홈페이지
https://sadd.or.kr

전화
02-739-1420

이메일
sadd@daum.net

후원계좌
국민은행 009901-04-017158

디자인
다니주누

유튜브
youtube.com/sadd420

페이스북
facebook.com/sadd420

인스타그램
instagram.com/sadd420

트위터
twitter.com/sadd420